

“오월정신 확산”... 5·18 전국·세계화 이끄는 사람들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씨 오월어머니 만나 “5·18 큰 힘 돼” 경북 장미옥씨, 전우원 양심선언에 묘지 참배·전야제 합창무대 참석

스리랑카에서 수십 년째 인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여성과 전두환 손자의 폭로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타 지역민들이 광주에 모였다. 각자 다른 계기로 5·18을 접하게 됐지만,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그랬듯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하나’가 됐다. 이렇듯 오월정신은 이제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스리랑카의 또 다른 ‘오월’

16일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55)씨가 5·18 제44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았다. 수간티니씨는 타밀족의 인권신장·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선 타밀족의 ‘영웅’이다. 수간티니씨는 ‘아마라’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타밀족을 억압하는 정부군에 대한 투쟁 활동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수간티니씨의 투쟁은 광주의 오월정신과 맞닿아 있다. 그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수간티니씨가 사상적·5·18 전야행사 등에



김형미(왼쪽)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씨가 16일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주비 기자**

참여하기 위해 먼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전야행사 등에 앞서 이날 오전 수간티니씨는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을 직접 대담한 것이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롯해 장명희·박수자 어머니 등 5명이 자리에 참석해 수간티니씨를 맞이했다.

김 관장은 수간티니씨에게 오월어머니집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관장은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자식, 남편, 형제를 잃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구속된 여성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 곳이다. 지금도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수간티니씨 역시 오월 어머니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 당사자로서 ‘오월’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했다. 수간티니씨는 어머니들에게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타밀족에게도 ‘5·18’이 있다. 2009년 5월18일 국가기관에 의해 ‘타밀 대학살’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광주 5·18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날 오월 어머니들은 수간티니씨를 위해 청년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 오월어머니상 배지를 직접 수간티니씨의 가슴에

달아주고, 5·18민중항쟁전적지도 도포를 선물했다.

오월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마친 수간티니씨는 “광주에서의 경험이 다시 스리랑카에 돌아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숨 건 고백이 낳은 오월 전국화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는 가족을 대신해 양심선언을 하고 5·18 피해자에게 사죄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경북 영양군 출신의 장미옥(53)씨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첫 마디다. 그는 지난해 3월 전씨의 광주 방문과 사죄 등을 보고 처음으로 ‘오월 광주’를 알게 됐다. 기독교를 포기한 채 자신 일가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장씨에게 큰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잘못을 뉘우쳐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커졌다. 장씨는 그길로 광주행을 택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오월의 진실은 그를 먹먹하게 했다.

장씨는 “눈앞에서 보게 된 항쟁의 역사는 큰 충격이었다. 축제처럼 꾸며진 ‘5·18전야제’도 구슬픈 추모행사처럼 느껴졌다”며 “망월동·전일빌딩245·기록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목숨 바쳐 민주주의에 헌신한 이들에 항쟁을 더 깊게 알아보고

싶어졌다”고 회고했다.

이후 장씨는 기념재단을 통해 오월서적 35권을 얻어 전국의 지인들과 나눔했다. 오월 관련 영화를 찾아본 뒤 서로 감상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보폭을 넓혀 피해 유가족들이 모인 오월어머니집을 방문, 가족 잃은 서러움을 수차례 함께했다. 오월 정신 계승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장씨는 올해 자녀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장씨는 “아직도 북한 개입설 등 오월을 왜곡하려는 이들이 많다. 이는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광주의 오월은 지켜져야 하고 기억돼야 한다. ‘모두의 오월’을 위해서는 결국 젊은 세대의 관심이 중요하다.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씨와 광주항쟁을 공부한 이들 중 11명은 오월어머니집의 초청을 받아 17일 오후 7시 5·18전야제서 ‘오월, 기다림’ 합창무대에 함께 설 예정이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부장은 “전우원의 진정한 사과가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본다”며 “가해자를 평화롭게 포용해 주는 모습은 해외서 많은 이슈가 됐다. 진술한 고백과 유가족들의 용서 모습이 또 다른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남편 이강하 화백...’

1면서 계속 그 덕분일까. 이 화백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5·18 중동자 등 6개 죄명’도 지난해 12월 광주고등법원 재심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벗겨졌다.

앞선 2022년에는 보훈처로부터 ‘오월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러나야 할 오월의 진실과 과제는 산적했다. 이에 딸과 아들도 책임자 처벌과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해 두 팔 걷

고 나섰다.

딸 이선씨는 미술을 전공해 현재 이강하미술관서 ‘오월 기록’을 담당하고 있다. 아들 이조흠씨는 올해 ‘제44주년 5·18 전야제’ 연출감독을 맡아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 사무총장은 반세기를 앞둔 오월이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꿈 많은 사람이 모진 옥고를 겪고 참인생이 기구해졌어요. 살아 생전 ‘당신 잘못 없다오. 고생 많았소’, 이 한말 못 해주게 천추의 한이죠. 억울함 한번 털어내는 게 소원이라던 어머니들도 그간 많이 돌아가셨어요. 유가족들이 못다 이룬 한 이제라도 털어내길 바라요. 더 이상 슬픔보다는 기억·계승되는 오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월에서 통일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등이 16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민족평화포럼에서 ‘오월에서 통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www.jnilbo.com 全南日報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자본감소 및 주권재국공고
 당회사는 2024년 5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 96,000,000원 중 금 96,400,000원을 감소하여 금 6,600,000원으로 하고 자본감소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8,686주 중 보통주식 8,640주에 대하여 당회사가 회람하는 주주총회부터 1주당 154,389원으로 유상인수에 의해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중 보통주식 8,686주를 49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자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의의를 제출 할 것과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주식회사 제이에스에너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636-49
 사내에서 허 훈

광고 문의
 직통 519-0710
 팩스 519-0709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4년 단4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장우일(720327-1*****)
 최후주사 전남 신안군 지도읍 효지길 36-13(자동리)
 위 망 장우일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이었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5월 17일
 공 고 인 : 최향례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5월 14일
 공고기간 : 2024. 5. 17. ~ 2024. 7. 16.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분묘개장공고(수정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37-2, 637-4, 산 12-23
 2. 분묘기수 : 57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의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토지소유주
 7. 안치장소 : 남도광역추모공원
 8. 안치기간 : 10년
 9. 신 고 처 : 김순식 (010-2626-0845)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 5. 17.

사론용암, 한들용암, 연화용암, 영주용암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사론용암, 한들용암, 연화용암, 영주용암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사론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1, 472-2, 472-12, 472-13, 472-14
한들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 472-3, 472-11, 472-12, 472-13
연화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1, 472-4, 472-10, 472-16
영주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 472-1, 472-4, 472-12, 472-15
- 사업 구역의 면적
사론용암 : 약 8,629㎡, 한들용암 : 약 8,537㎡
연화용암 : 약 9,836㎡, 영주용암 : 약 8,762㎡
- 발전사업의 내용
발전설비용량 : 각 999.99kW
사업개시예정일 : 2026. 01. 01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사론용암 : (주)사론, 한들용암 : (유)한들에너지
연화용암 : 정연화, 영주용암 : 김영주
- 의견제출기간
2024년 05월 17일 ~ 2024년 05월 23일(7일간)
- 의견제출방법
메일 : hds3388@daum.net
전화 : 061-323-5000
팩스 : 061-323-6000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검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